

돌아온 한국 애니 대부 ... “우리 맛으로 승부”

지난달 2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김청기 감독을 문화콘텐츠 앰배서더 대표로 위촉했다. 김청기 감독이 누구인가. ‘로봇 태권브이’로 동네 골목마다 불리던 일본 만화영화 ‘마징가’ 주제곡을 단번에 밀어내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을 일깨워준 장본인이 아닌가. 김청기 감독을 만나 당시 추억과 더불어 한국 애니메이션의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글 신승철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주요작품

로봇 태권브이, 로봇 태권브이 2탄(우주작전), 로봇 태권브이 3탄(수중특공대), 황금날개 1·2·3, 로봇태권브이 vs. 황금날개의 대결, 돌이장군 제3땅굴, 삼국지 1·2, 꼬마어사 툰이, 흑성로봇 썬더A, 공룡 100만년 툰이, 쏘라 1·2·3, 슈퍼태권브이, 다윗과 골리앗, 84 태권브이, 스페이스 간담V, 로봇군단과 메카3, 외계에서 온 우리매 1·2, 우리매 전격쓰리작전, 우리매 4탄 썬더비 출동, 슈퍼 홍길동 1·2·3, 바이오맨, 로봇 태권브이 90, 왕후 에스더, 의적 임꺽정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맛이 있다. 어린 시절 화로에 구워먹던 군고구마가 그러하고, 밭에서 뽑아내 즉석에서 벗겨먹던 무가 그러하며, 국수가게에 하얗게 널려있던 국수를 비벼먹던

맛 또한 잊을 수 없다. 지금에 있어 아무리 그 맛을 되살리려 해도 영 맛이 예전같지 않다.

‘로봇 태권브이’ 또한 7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낸 세대들에게 이러한 존재가 아닐까? 그 시절 꼬마라면 누구나 동네 골목에서 “태권브이와 마징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는 논쟁으로 열을 올렸을 것이다. ‘달려라 달려 로봇야~’로 시작되는 주제가와 혼이, 영희, 툰이 등 등장인물은 물론 김청기란 이름 석자도 기억 한편에 또렷하다.

흥행의 기억 저편을 떠올리며

부천시 토토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만나본 김청기 감독. 우리 나이로 예순 넷, 20여년전 신문지면에서 봤던 당당한 이미지는 어느덧 푸근함으로 변해 있었다.

“광개토대왕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담아낼 ‘광개토대왕(영문명: Great Emperor)’을 준비하고 있어. 한반도 영웅을 오래전부터 작품화해보고 싶었지. 소년기의 파란만장한 테마를 비롯해 인물중심으로 그려낼 거야.”

김 감독은 현재 ‘메가 홍길동’과 ‘광개토대왕’ 등 두 편의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홍길동이 로봇으로 등장하는 ‘메가 홍길동’의 개봉을 위해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광개토대왕’의 경우 2년의 제작기간을 거쳐 데모 필름까지 완성, 이달 8일 제작발표회를 앞두고 있다.

태권브이 필름 복원 및 리메이크 작업과 관련해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자료실에서 찾아낸 듀프 네거(현재 국내에 있는 것 중 태권브이 원판에 가장 가까운 판본으로 원본 필름과 상영 프

린트의 중간 단계 필름)의 훼손된 부분 복원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옛날 이야기로 화제가 돌아가자 김 감독의 말문이 잠시 막혔다. 디즈니 만화영화 ‘피터팬’과 ‘백설공주’에 대한 충격으로 영화사 문을 두드리게 된 청년 김청기 시절부터 로봇 태권브이의 성공, 이후 잇따른 흥행실패로 인한 파산까지의 역정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으리라.

“로봇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지. 그런데 어린이들이 마징가가 일본 것인 줄도 모르고 좋아하는 게 안타까웠어.”

변변한 작업실 없이 한달간 여관방을 뒹굴면서 완성했던 태권브이 시나리오, 그리고 대한극장 옆 가정집을 빌려 제작했던 과정 하나하나를 김 감독은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뭐 하나 넘쳐나는 게 없었지만 너무나 소중한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김 감독은 회고했다.

“세밀한 표현에 쓸 만한 연필조차 없었고, 수입규제가 심했던 당시 필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미 공보부로부터 짜투리 필름을 얻어 쓰곤 했지. 요즘 같아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렇게 만든 로봇 태권브이는 지난 76년 7월 대한극장에서 선보이게 된다. 극장에 어린이들이 몰려들면서 줄이 성심병원(現 중대 필동병원)까지 늘어서기도 했고, 18일간 28만명의 관중이 들어섰다. 당시로는 역대 한국영화 2위 기록이었다.

못다한 얘기들, 그리고 부활의 꿈

로봇 태권브이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김 감독은 제2탄 ‘우주작전’ 편에서 더욱 열정을 불어넣는다. 주인공 훈이와 태권브이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연출하기 위해 실제 태권도 사범들의 동작을 기초로 작화를 그렸고, 최호섭 등이 불렀던 주제곡은 국내 창작 만화영화 사상 최초의 OST 음반발매라는 기록을 세우는 등 완성도를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열심히 만든 후편이 관객들로부터 전편만큼의 호응을 받지 못했던 탓인지 김 감독의 작품들은 점차 생기를 잃어갔다. 더구나 ‘똥이장군’, ‘우뢰매’ 등 꾸준히 인기작을 냈음에

도 불구하고 김 감독의 수중에 들어온 돈은 별로 없었다. 김 감독은 결국 제작비 절감과 흥행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지난 96년 부도를 내고 무대 뒤편으로 사라졌다.

화려한 스포라이트에서 비껴 있었지만 김 감독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정은 멈춤이 없었다. 상영된 애니메이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관람했을 정도.

“참 좋아졌어. 잘 만들지. 음, 근데 뭔가 부족해. 흥행에 실패했다는 것은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지. 영상미에만 너무 치중해 여운이 없거든. 그런 면에서 ‘오세암’은 참 아까운 작품이야.”

실새없이 움직이는 뒷배경, 생각할 여유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타이트한 전개가 정답은 아니라는 게 김 감독의 신념이다. 대부분의 국산 애니메이션들이 사전에 흥행을 너무 고려한 나머지 우리의 멋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헐리우드판 애니메이션을 답습하고 있는 현실을 김 감독은 너무 아쉬워했다.

그래서 김 감독은 돌아왔다. 김 감독의 최고 소망은 우리의 전래동화를 소재로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어보는 것.

“디즈니 봐. 짝막한 소재로 1시간 이상의 스토리를 멋지게 꾸며 가잖아. ‘심청전’, ‘나무꾼과 선녀’, ‘별주부전’ 등 우

리의 전통 소재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어. 기회만 된다면 정말 제대로 만들고 싶어.”

사실 몇몇 작품에서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국내에 김 감독만큼 창작 만화영화 제작에 지속적으로 몰두했던 인물이 있었을까? 방학 시즌만을 공략해 반짝 흥행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졸작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도 하청 만화영화의 기능적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꾸준히 창작욕구를 발산시켜 왔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자 ‘깡통로봇’ 캐릭터를 직접 그려주며 “돈은 못 벌었지만 행복해. 아직도 많은 사람이 태권브이를 사랑하고 내 이름 석자도 기억해 주잖아”라고 말하는 김 감독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일본 미야자키 감독과 같은 작업환경이 주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을 떨치지 못했다. 🇰🇷

